

제56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

미술



코끼리 타는 사람
초등부1.2학년 최원창(진남초1)



우아한 공작
초등부5.6학년 이시욱(매곡초5)



저 벽들처럼 부서진 내맘
중등부 전혜주(북성중2)



수목원 안에서
고등부 범지선(수피아여고2)



북극의 위기
초등부3.4학년 박가은(유덕초3)



은하의 노래
칸만화 고등부 조아라(대성여고3)

종합상

<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광주동여자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우수상>
살레시오초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단체상

가야금병창 초등부=관산초등학교
한국창작무용 초등부=화순만연초등학교
합창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관현악합주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발레창작 중등부=동여자중학교
현대무용 중등부=동여자중학교
합창 중등부=살레시오여자중학교
관현악합주 중등부=여도중학교

시

<초등부>

씨앗

차진우(염주초4)

얼마 전에 과학선생님은 실험 숙제라고 강낭콩 하나를 주셨다. 우린 다들 다들 화분에 흙을 담으면서 누가 제일 빨리 싹이 나는지 내기를 걸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만났을 때 내 것은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싹은 없다. 명환이의 작은 싹이 나에게 '베롱'하는 것 같았고 현진이 것은 연한 잎이 보일락 말락 숨으면서 나에게 '술래'하라고 하고 아현이 것은 제법 싹이 올라왔다. 화가 났지만 참다가 괜히 엄마께 내 것만 죽었다고 소리 지르며 울었다. 지금은 명환이 것도 현진이 것도 모두 없다. 나랑 똑같아졌다. 아현이 것만 강낭콩 나무가 되어 우리들의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나랑 명환이랑 현진이는 아현이의 강낭콩을 보면서 없어져버린 우리 씨앗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씩 하자고 했다.

<고등부>

뿌리

김민빈(경신여고3)

비가 내리고 난 뒤, 황룡강 방죽 너머 작은 추어탕 집 물안개가 희미하게 손을 뻗고 있다

파란 슬레이트 지붕이 미끄러질 듯 얽혀진 식당 하루의 고단함이 거름이 되어 버린 늙은 여자가 산다

길가에 바람이 부러뜨려 나뭇가지들 여자의 손목처럼 앙상하다 식당을 터진 삼아 뿌리내린 지 10년째,

가끔씩 때 지난 사연을 낚아오는 낚시꾼들을 보며 아들생각에 한숨을 고아내는 여자 아직도 낚은 사진 속에 갇혀 자라나고 있는 아들의 유년은 발아되지 못한 그리움일까 식탁에 작은 화분에는 깨진 손톱처럼 수선화 꽃잎이 파리하다

여자는 손을 뻗어 무수한 강줄기를 움켜잡는다 언젠가 놓쳐버린 아들의 발목이 참방거리며 돌아올 것을 믿는다 퐁퐁 불어버린 손을 가만히 펴보다 떠나 간 것들의 흔적,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길가에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앞사귀를 잔뜩 늘어뜨린 후박나무 그녀의 낮은 지붕을 내려다본다 꿈뻑꿈뻑 잔별들이 길을 멈추고 눈 감은 밤 여자의 하루는 오늘도 황룡강 깊은 어둠에 뿌리 내린다

미술



최원창 <진남초1>



박가은 <유덕초3>



이시욱 <매곡초5>



전혜주 <광주북성중2>



범지선 <수피아여고2>



차진우 <염주초4>



김민빈 <경신여고3>



김유진 <광주송원초6>



김민정 <경신여고3>

성악



차윤서 <화순제일초2>



한승민 <하백초4>



이정기 <목포석현초5>



양승우 <광양중동중2>



장석준 <광주예술고2>



마원빈 <남약초4>



서현주 <전남예술고2>



최민정 <실례시오초6>



나유빈 <광주예술고2>

바이올린



정재현 <전주우전초4>



이재은 <광주송원초5>



송혜빈 <수피아여중2>



김산지 <광주예술고3>



홍성란 <불로초4>



채지연 <나포초3>



이신호 <광주예술고2>



조영빈 <전주예술고3>



박성현 <전주예술중3>

피아노

클라리넷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작)

발레 (클래식)

칸만화



문무진 <광주예술고3>



이주해 <수피아여고2>



박혜재 <풍암고3>



이예진 <선창초4>



김영지 <동여자자3>



김지은 <대반초6>



이누리 <동여자자3>



조종희 <광주예술고3>



조아라 <대성여자3>

산문

<초등부>

꾸중을 듣고

김유진(송원초6)

나는 놀랐다. 게다가 엄마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 앞같이 막막하다.
“김유진, 너 누가 문을 광하고 닫았어?”
“내..내가 닫은 거 아니야, 바람이 와서 닫았어! 모르면서!”
엄마가 들이닥친 그 순간, 난 별 생각이 들었다. 울고 있을걸. 문 잠금걸.
“김유진! 나와서 손들고 앉아있어!”
그 때 동생이 들어왔다.
“나가!”
동생이 울었다. 그 순간 동생에게 큰 화풀이를 하고 말았다. 더 꾸중을 들었다.
이럴 땐 친구와 화를 푸는 게 선택인데.. 더욱 더 화나는 것은, 핸드폰도 뺏겼다. 정말 화나고 열받았다.
“광!”

<고등부>

내 이름 우렁이

김민정(경신여고3)

앞서 내려온 시냇물이 내 몸을 간질인다. 뒤따라온 시냇물은 긴 여행의 여정을 들려준다.
나는 푸른 하늘에 지도를 그려본다. 햇빛이 안 보일만큼 울창한 숲에서부터 섬진강 하류까지. 내가 그린 지도는 구불구불하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새다.
내가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경면에 있는 흥복고 밭이다. 바위에 붙어있는 물이끼를 먹고 산다. 플랑크톤이나 물풀을 먹기도 한다.
내가 순탄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면, 눈에 있어야 한다. 친구들은 벼농사를 짓는 논으로 갔다. 일반 우렁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덩치가 큰 왕 우렁이다. 우렁이 눈에 자유롭게 풀어두면, 플랑크톤이나 작은 생물들을 먹어 벼가 잘 자라도록 돕는다.

한 30분이 지나. 그쯤에 세수를 했는데 너무나 분이 안 풀려서 엄마 물레 치약을 다 짜고 칫솔과 함께 변기 물을 내렸다.
“유진아! 밥 먹으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장조림을 하고 계셨다. 침이 넘어갔다. 근데 먹자니 자조심에 상하고 안 먹자니 배고프고.
“앉아.”
엄마가 말했다. 난 쳐주는 척 앉았다.
“배고프지? 먹어.”
“안짜? 아빠는 짜대.”
아까 화난 것이 스트르 풀렸다.
“아빠가 나이 좀 먹어서 그래.”
꾸중 듣고 행복한 것은 처음이다.

수업 할아버지는 옥과 오일장에서 우리를 샀다. “이영자.”
수업 할아버지는 자전거 뒷자리에 우렁이 앉혔다. 검정색 고무끈으로 다리를 자전거에 묶었다. 일차선 도로를 달려갈 때, 수업 할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와 친구들은 어디로 갈지 괜히 설렘다.
달경덜경. 포장 안 된 흙길로 들어선 듯 했다. 조그만 물부리에 걸려 휘청거렸다.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끼이이익. 우리들은 땅 위로 떨어졌다. 수업 할아버지도 털썩 엎어졌다. 땀을 흘리더니, 무릎을 털 털고 일어났다. 나는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멀찌감치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친구들을 끌어 앉았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친구들은 다리에 담겨 자전거 뒷자리에 다시 올라왔다. 수업 할아버지는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나는 작아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나는 물을 찾았다. 흥복고 아래에는 조그만 시냇가가 있었다. 시냇물은 천천히, 부드럽게 흘렀다. 간혹 놀러오는 아이들은 돌에 붙어있던 친구들을 집어가지기도 했다. 그리고 시냇가 옆에 난 고

사리나 미나리, 병이를 캐갔다. 아이들 손에 잡혀 가면, 여왕에 넣어놓고 우렁이 키운다고 했다. 나뭇잎 같은 아이들의 손이 아픈거린다. 백로에게 잡혀 먹히는 것보다 아이들의 여왕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해가 워낙 뜨거워 질 때면 팔랑귀리는 종소리와 함께 수업 할아버지가 흥복고를 지나간다.
할아버지의 흰 수염이 마치 민들레 흩날리듯 같다. 바람에 의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흩날리는 민들레 씨의 움직임이 부러웠다.
나는 하늘에 그렸던 지도를 올려다본다. 얼마만큼 가면 은빛 강에 도착할까? 강은 또 어디로 흐르는 거지?
해가 중천에 뜬 오후, 아이들이 침범하면서 시냇가로 들어왔다. 이개가 잔뜩 긴 바위에 미끄덩 넘어지기도 한다.
“애들아 이것 봐봐. 엄청 큰 우렁이야.”
단발머리의 소녀가 얼굴을 들이밀며 말한다. 아이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나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진다. 아이들이 비닐봉지에 반 틀 정도 물을 채워줬다. 밖을 내다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다. 비닐봉지 안에서 가장 캄캄한 밤을 보낸다.